

# 투데이 EBS (10.1)

## 국어 강사 : 유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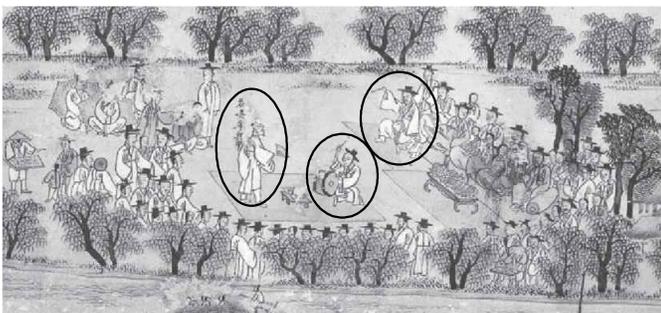
자료에 관한 질의 응답 : 010-9766-5262

### <문자나 카톡으로 통일>

## PART1. 수특

### <B12. 판소리>

19세기에는 뛰어난 판소리 창자들이 많았는데, 특히 판소리 비평가들이 대명창으로 인정한 창자들을 일러 '8명창'이라고 한다. 이들은 일생 동안 소리를 연마하여 자신의 개성에 맞게 '더늠'이라고 불리는 독창적인 대목을 만들어 그 대목을 장기로 삼기도 하였다. 19세기에 활동한 8명창 중에서도 모흥갑은 '춘향가'의 '이별가' 중 '날 데려가오' 하는 대목에서 높은 소리를 계속 질러 내는 것으로 유명하였는데, 그가 평양 연광정에서 소리하면 멀리 십 리 밖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실제로 ㉠ 모흥갑이 대동강변에서 판소리 공연을 하는 장면은 평양 감사가 부임하는 모습을 그린 10폭짜리 병풍에 남아 있는데, 이 그림 속에는 19세기 전반기 당시 판소리의 공연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소리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은 판소리 명창이지만,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듯이 명창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은 고수이다. 판소리 창자는 고수가 얼마나 장단을 잘 쳐 주는가에 따라 제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 그림 속에서도 명창 모흥갑의 소리에 맞추어 북 반주를 하던 고수는 절정에 이른 모흥갑의 소리에 맞추어 북채를 든 팔을 높이 치켜들어 북통 꼭대기, 즉 대점(大點)을 세계 내리치려 하고 있다. 판소리에는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휘모리장단, 그리고 엇모리장단 등이 쓰이는데, 장단이 사설과 잘 어울려야 한다. 예를 들어서 슬픈 대목이나 풍경 묘사를 할 때는 느린 진양조장단을, 열거할 때나 상황이 급박할 때는 빠른 자진모리장단이나 휘모리장단을 쓴다. 특이한 인물이 등장할 때는 2박과 3박을 섞은 엇모리장단을 사용하는데, 훌륭한 고수는 북 반주만으로도 절름거리는 듯한 특이한 느낌을 표현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기도 한다.

위 그림 속에서 주목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은 고수 바로 뒤편에 따로 자리를 잡고 앉아 추임새를 하려고 팔을 치켜든 청중이다. 이 인물은 물입하고 있다가 소리의 절정 부분에서 고수가 대점을 치는 순간에 맞추어 팔을 들어 추임새를 넣으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리를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소리 속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을 ㉡ '귀명창'이라고 하는데, 판소리 창자들은 귀명창이 소리를 감상하고 있을 때는 한껏 더 실력을 발휘하여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추임새는 창자가 아닌 고수나 청중이 자발적으로 판의 중간에 '으이', '얼씨구', '좋다', '그렇지' 등의 감탄사로 흥을 돋우어 주는 것이다. 추임새는 보통 판소리 창자가 소리를 잠시 멈추는 휴지 부분에 들어가며, 극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부분에 들어가지도 한다. 추임새는 창자가 힘이 빠졌을 때는 힘을 북돋워 주고 창자의 소리에 따라 소리의 빈 공간을 메워 주는 역할을 하기 때

문에 판소리에서는 청중이 창자, 고수와 함께 소리판의 주체가 된다.

1. 더늠은 8명창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대목을 일컫는다.(o,x)
2. 고수의 장단은 판소리 창자의 실력 발휘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o,x)
3. 서정적이고 슬픈 대목에 쓰이는 엇모리 장단은 2박과 3박을 섞어서 사용한다.(o,x)
4. 창자는 북 반주만으로도 절름거리는 듯한 특이한 느낌을 표현한다.(o,x)
5. 귀명창은 고수가 의도적으로 고용한 인물로, 판소리 창자가 실력을 발휘하게 만들기도 하였다.(o,x)
6. 판소리는 다양한 주체들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예술이다.(o,x)

### <B13. 에코 지능>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는 많은 대안을 분석한 후 구매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품들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과 같은 구체적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모든 대안에 관련된 정보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상품 선택에 활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근시안적인 시각은 상품 구매에 있어서 가격과 친환경 문제의 대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가격에는 지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친환경 문제에는 둔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에 대한 정보보다 제품 생산에 내재된 친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은 소비자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친환경 문제는 비즉각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에코 지능'이다. 에코 지능이란 '소비자 자신의 소비와 생산 활동이 지구 환경에 미칠 영향 전반을 파악할 줄 아는 예민하고 현명한 통찰력'을 말한다. 에코 지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우선 친환경 혹은 그린 정책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소비가 지구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정한 에코 지능을 얻기 위해서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이해하고 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J. 스티글리츠는 소비자가 모르는 정보를 생산자나 판매자인 기업만이 알고 있을 때 '정보 비대칭성'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친환경 문제에서 정보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린 워싱이다. 이는 겉으로는 친환경 정책이나 그린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친환경성이 높지 않거나 오히려 환경 파괴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기업 정책을 말한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재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유기농 친환경 인증 마크로 소비자 인식을 좋게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린워싱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정상적인 친환경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진짜 친환경 제품을 시장에서 밀어낸다는 데 있다.

그린워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 물질의 양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에 소비자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 소비자는 한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환경 관련 비용과 생물학적 위험도 등을 추적하고, 이들 정보를 구매 결정에 활용해야 한다. 또한 가격이나 품질 등 기존 시장 인센티브가 더 이상 경쟁력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업들에게 일깨워 기업 혁신을 독려하는 에코 지능이 높은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가격이나 품질 못지않게

[A]

부적절한 생산 요소가 있거나 생태계를 위협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도록 에코 지능을 높인다면 세상을 바꾸는 숨어 있는 소비 심리가 힘을 발휘할 것이다.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1.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대안을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o,x)
2.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가격에 대한 정보보다 친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가 더 많기 마련이다.(o,x)
3. 에코 지능에 대한 개념과 그러한 개념 실현의 필요조건을 제시하고 있다.(o,x)
4.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비의 방향성이 지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민감한 통찰력을 지녀야 하는 까닭은 평소 소비들이 가격에 둔감하기 때문이다.(o,x)
5. 그린워싱은 에코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행위이다.(o,x)
6. 어느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단계 중 특정한 단계가 빠진다면 환경 오염 물질의 양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o,x)
7. 친환경 문제에 대한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에코 지능은 단기적이고 근시안적 시각을 가진 소비자를 장기적인 시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할 수 있다.(o,x)

## <B14. 가다머의 해석학>

칸트의 인식론에서는 진리 추구를 위해서는 언제나 이성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다. 칸트의 이러한 주장을 계몽주의라는 넓은 의미에서 재해석한다면,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연 과학자들이 가지는 태도처럼 모든 선입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성의 규칙과 기준에 따라 사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간은 마침내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불변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된다.

계몽주의자들은 타인들이 가지는 권위나 명성을 좇아서 판단하거나, 속고를 거치지 않은 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관념만을 가지고 사태를 파악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즉 그들은 과학적·실증적 이성을 사용할 때 외부의 간섭 없이 이성을 충분히 발휘하면 언제든지 참다운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계몽주의자들은 성서 해석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적 진리관은 선입견과 편견에 가득 찬 오류의 역사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성서를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문서로 간주하였다. 즉 계몽주의자들은 전승의 권위에 의한 성서 해석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성서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가다머는 성서 해석에 대한 계몽주의적 태도는 성서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기보다 오히려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가다머의 해석학은 역사주의적 해석학과는 구분된다. 역사주의적 해석학은 과거를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므로, 현재 역사가들의 역사관이 역사 해석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현재 역사가들의 역사관은 과거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이고, 이러한 선입견이 개입되면 역사는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왜곡된 담론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입장에 대해 가다머는 선입견의 완전한 배제란 불가능하며, 오히려 선입견이 인식에 기여하는 긍정성을 역사주의나 계몽주의자들이 완전히 무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역사에 대한 참다운 인식과 이해를 위해서는 권위와 전통을 복원시켜 텍스트 이해에 있어서 선

입견이 가지는 진정한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가다머는 권위가 인정을 토대로 하며, 그런 점에서 권위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다른 사람의 더 나은 통찰을 신뢰하는 이성 자체의 태도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권위를 오직 불합리한 권위로만 간주한 계몽주의와는 달리 가다머는 합리적 권위가 가능하며, 이는 진위나 선악의 구별 없는 맹목적 추종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사람들의 이성에 의해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권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가다머의 권위에 대한 이와 같은 통찰은 곧바로 전통에 대한 재해석으로 이어진다. 그는 '전통이란 그 본질상 모든 역사적인 변천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늘 함께 작용하는 보존력이다. 그러나 보존은 이성의 행위이며, 어쨌든 보존은 전복이나 혁신 못지않게 자유에서 유래하는 태도'로 파악한다. 따라서 가다머는 이성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는 전통도 존재하지만,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보존, 전승되는 전통을 계몽주의가 배제하고자 했던 선입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다머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그는 적어도 정신과학에 있어서 선입견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는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전통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으며, 이 사실은 역으로 우리가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가다머는 인간은 모든 이해에 앞서 어떠한 종류이든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한 인식, 참된 이해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성립한다고 보았다.

1. 이성의 규칙과 기준에 따른 사고를 진행하더라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o,x)
2. 기존의 지식이나 관념만을 고수한다면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몽주의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지양하였다.(o,x)
3. 가다머와 계몽주의자들이 갖는 성서 해석의 태도는 동일하다.(o,x)
4. 역사주의적 해석학은 과거를 현재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다머와 유사하다.(o,x)
5. 가다머는 선입견이 인식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o,x)
6. 계몽주의와 가다머는 권위에 대한 관점이 상이하다.(o,x)
7. 어떠한 전통이 이성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라면 가다머의 주장은 약화된다.(o,x)
8. 전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정신 과학에 있어서 생긴다면 가다머의 주장은 강화된다.(o,x)

## <B15. 토지에 대한 권리>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져 나중에는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한다. 그렇지만 빌딩이나 아파트와 같은 건물의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오르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 값가상이 되지만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한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는 건물과 달리 소모되는 것이 아니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의 가능성도 적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이지만 법적·경제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를 따로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토지가 없는 상태로 건물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만약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으면 이것은 불법 점유가 된다.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현황은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된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건물의 구조 등과 같은 일반적인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갑구에는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일, 등기를 한 이유, 권리자 등이 등기한 순서대로 기록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을구에는 전세권, 지상권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다. 을구에 기록되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사용한 후 반환하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권리이다. 전세권은 보통 1~2년 단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지상권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 등에 따라 30년, 15년, 5년의 최단 존속 기간의 제한만을 두고 있다. 그리고 건물이 아직 건축되기 전이라도 토지 소유자와 건물 건축자가 토지 사용료에 합의를 하고 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한 예를 보자. 김 씨는 도시 외곽의 공터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물로 나온 것을 보고 집을 짓기 위해 급히 매수하였다. 김 씨는 이 토지가 김치 회사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김치 회사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된 [A] 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김치 회사는 지상권을 근거로 김 씨가 집을 짓는 것을 막았다. 김 씨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김치 회사로부터 지상권을 매수해야 하는데, 김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먼저 공장을 짓기 시작했지만 김 씨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파트와 같이 건물을 층이나 벽체로 구분하여 소유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될까?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표제부에는 한 세대의 층과 호수 등이 나오고, 한 세대가 전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유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전유 부분을 흔히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파트의 면적에서 놀이터나 주차장과 같은 공용 면적을 뺀 것이다. 표제부에는 또 아파트 건물 한세대를 소유하기 위한 토지에 대한 권리인 대지권이 기록되어 있다. 대지권은 아파트 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보통 아파트 건물이 속한 토지를 전용 면적에 따라 나눈 지분의 형태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같은 전용 면적 100세대가 있는 아파트의 대지가 5,000m<sup>2</sup>라면 한 세대의 대지권 지분은 100분의 1이며, 각 세대 몫의 토지는 50m<sup>2</sup>가 되는 것이다.

\*등기 :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1. 토지와 건물의 등기를 따로 하는 이유는 토지와 건물의 특성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o,x)
2. 토지는 건물과는 달리 부동산이기 때문에 손실의 가능성이 적다.(o,x)
3.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이용하는 권한을 이야기하며 부동산 사용 이후 전세금은 반환되지 않는다.(o,x)
4.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려면 기간이 약정되지 않아야 하며, 소멸 통고 이후에는 전세권의 소멸 효력은 곧바로 발생한다.(o,x)
5. 지상권의 사용은 토지의 건물에 국한되어 있기에 나무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o,x)
6.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길수록 철거가 용이한 공작물일 확률이 높다.(o,x)

7. 아파트의 면적은 전용 면적에 비해 항상 같거나 클 수밖에 없다.(o,x)
8. 아파트 건물 한세대를 소유하기 위한 토지에 대한 권리는 지분의 형태로 표시된다.(o,x)
9. 지상권 설정자는 양도나 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건축자가 토지 사용료에 합의하고 등기를 해야만 한다.<배경지식>(o,x)

**B12. 판소리**

x, x, x, x, x  
o

**B13. 에코 지능**

o, x, o, x, x  
o, o

**B14. 가다머의 해석학**

o, o, x, x, o  
o, x, x

**B15. 토지에 대한 권리**

x, x, x, x, x  
x, o, o, x